

호남 4% 영남 36%... 정책금융공사 中企대출 편중

최근 3년 7116억원 vs 5조 4181억원 충청권도 호남권에 비해 2.5배 많아

호남 지역에 대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간접대출금(온렌딩)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온렌딩 지원 총액 15조 237억원 중 호남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전체의 4.7%인 7116억원에 그쳤다.

반면, 영남 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총 5조 4181억원으로 전체의 36.1%였다. 이는 호남 지역 지원금의 7.6배에 달하는 수치다.

호남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지원 부진은 인구가 비슷한 충청 지역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조 809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전체의 12%로 호남의 2.5배에 이르고 있다. 가장 많이 지원받은 수도권은 경우 전체의 46.7%인 총 7조1855억원이었다.

호남권에 대한 지원 실적은 ▲2011년 3.3% ▲2012년 5.4% ▲2013년 9월까지 5.3%를 기록, 소폭 상승했으나 5% 내외의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지원은 ▲2011년 42.2% ▲2012년 47.8% ▲2013년 49.2%로 급증하고 있고, 충청권에 대한 지원도 ▲2011년 9.4% ▲2012년 13.9% ▲2013년 12.4%로 늘어나는 추세다.

영남 지역에 대한 지원은 2011년 44.9%로 정점을 찍은 뒤 32.6%, 32.5%로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2011년에 영남권이 수도권보다도 많았던 비정상적인 부분이 조정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결국 1%에 미치지 못하는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호남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지역적 편중은 곧 미래의 산업기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모든 정책금융지원 전반에 대한 지역 편중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온렌딩 =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빌려주면 민간 은행이 여신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 간접대출 지원 제도다.

호남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은 ▲2011년 3.3% ▲2012년 5.4% ▲2013년 9월까지 5.3%를 기록, 소폭 상승했으나 5% 내외의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지원은 ▲2011년 42.2% ▲2012년 47.8% ▲2013년 49.2%로 급증하고 있고, 충청권에 대한 지원도 ▲2011년 9.4% ▲2012년 13.9% ▲2013년 12.4%로 늘어나는 추세다.

영남 지역에 대한 지원은 2011년 44.9%로 정점을 찍은 뒤 32.6%, 32.5%로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2011년에 영남권이 수도권보다도 많았던 비정상적인 부분이 조정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결국 1%에 미치지 못하는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호남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지역적 편중은 곧 미래의 산업기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모든 정책금융지원 전반에 대한 지역 편중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융권 “내년 경제 성장률 4.0%”

“수출·투자 쌍끌이”... 국내외 기관중 가장 높게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가 연 4.0%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30일 ‘2013년 금융동향과 2014년 전망’ 세미나에서 “2014년에는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연간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3.6~3.7%)을 소폭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이 3.7%, 한국은행이 3.8%, 기획재정부가 3.9% 수준으로 각각 보고 있다.

연구원은 내년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2.3%·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7.5%에 달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수출 증가세가 뒷받침된 덕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증가율도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5.4%·예상치)보다 높은 6.7%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와 수출이 4%대 성장 달성에 ‘쌍끌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3.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1.9%·예상치)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 비해서는 낮다. 건설투자도 올해(4.1%·예상치)보다 낮은 2.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4%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617억달러·예상치)에 이어 529억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중 연평균 달러 당 1,074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내년 3월까지 신규투자 中企 감세 혜택

내년 3월까지 신규 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가속상각(加速償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감가상각)하고 세금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다.

지금만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가상각 기간이 4년(50%)까지 짧아진다는 예이다. 상각 기간을 앞당길 경우 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의 절세(節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3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4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각각 세제혜택을 받는다.

한편,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김치담그기 즐거워” 30일 대한항공이 해외 예약 센터와 공항 조업사 외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런 코리아 프로그램(Learn Korea)’ 행사 참가자들이 서울 인사동을 찾아 김장 담그기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경기회복 되도 중소형 아파트 인기 지속”

전국공인중개사 77%...22%만 “일시적” 답변

광주·전남지역 포함한 전국 공인중개사의 77.1%는 중소형 아파트 인기 추세가 경기 회복과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748곳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소형·중대형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형 인기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77.1%(577명)가 ‘경기 회복과 관계없이 지속적’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22.9%(171명)가 ‘경기 회복이 진행될 때까지 일시적’이라고 답했다.

‘중소형 선호도가 중대형보다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1%(472명)가 ‘인구 구조변화(베이비붐 세대 은퇴, 핵가족화)’를 꼽았다. 이어 ‘중대형 대비 낮은 매매(분양)가격 및 유지비’가 22.9%(171명), ‘중대형보다 가격 하락 방어에 유리’가 13.1%(98명)로 나타났다.

4인 가족 거주에 적합한 전용면적에 대해선 71%가 전용 84㎡라고 답했고 전체의 57.6%는 가격 하락에도 중대형 아파트 매수를 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위기의 건설사... 줄줄이 구조조정 공포

장기불황 유동성 약화에 워크아웃 개시 잇따라

장기 불황에 빠진 건설업체가 구조조정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들어 건설사들이 유동성 약화로 줄줄이 구조조정의 길로 들어섰고 있고 이미 구조조정 중인 건설사들도 기업 인수·합병(M&A) 지연 등으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일 채권단과 건설업체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쌍용건설과 경남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재수기업들이다.

쌍용건설과 경남기업 외에 STX그룹과 동양그룹, 한일건설 등도 올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TX그룹 계열사들은 건설과 조선, 해운 등 업황 부진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멘트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도 건설업 부진과 자금난으로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워크아웃 중이던 한일건설은 최대주주 한일시멘트의 지원이 어려워져 자 올해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섰고, 여행업 외 개발·시행업을 하는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으로 법정관리를 추진해 조기 졸업했다. 그러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통해 구조조정 중인 상당수 건설사는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59.58 (+7.82)	▲ 코스닥지수 537.68 (+3.77)	▼ 금리(국고채 3년) 2.79%(-0.01)	▼ 원·달러 환율 1060.20원(-0.40)
----------------------------	---------------------------	------------------------------	------------------------------

IT 수출 다시 활기...작년비 9.6%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정보통신(IT)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IT 수출액은 995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1.3%)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무역흑자도 작년보다 65억달러 증가한 506억달러를 기록, 자동차(459억달러)를 밀어내고 수출 1위를 차지했다. IT 부품 수출증가율(11.1%)이 완성품(6.2%)의 두 배에 달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IT 전체 수출 가운데 부품 비중은 2008년 66%에서 올해 1~8월에는 83%로 뛰었다. IT 무역수지 흑자에서의 부품 비중도 49.2%에서 82.8%로 급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통신기기·인쇄회로기판 등이 올해 IT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362억달러)는 메모리와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면서 수출 구조가 고도화됐고, 2위 품목인 디스플레이(214억달러)의 경우 TV·모니터용 수출 비중은 하락한 반면 휴대전화·태블릿PC용 비중은 증가한 게 특징이다. /연합뉴스

■ 새 얼굴

“중소업체 도시개발사업 참여 독려”

박철홍 주택건설협 광주·전남도회장

“회원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역량 강화 및 사회봉사사업 지원활동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박 회장은 2001년부터 골드클래스 등 25년 가까이 주택건설업을 경영해 왔다. 고흥출신으로 송일고, 조선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외원과 광주 고등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선 부원장 출연)

성사율 호남 1위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초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초혼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우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8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35~64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70세 ‘무술산 여성’ 희망 33~48세
		여성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